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1월 7일(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11월 무역적자 390억 달러, 11개월래 최저
- 2)12월 ISM서비스업지수 56.2, 6개월래 최저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유로존, 12월 CPI 전년대비 -0.2%, 약 5년만에 첫 마이너스
- 2)BOJ, 유가하락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예상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코치, 신발 브랜드 스튜어트와이츠먼 인수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1월 무역적자 390억 달러, 11개월래 최저

- 지난 7일 미 상무부는 11월 중 무역수지가 11개월래 최저 수준인 3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지난 11월 중 수입은 2.2% 감소한 2350억 4천만 달러, 수출은 1.8% 감소한 1964억 달러로 집계
- 금번 결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20억 달러 적자를 하회하는 결과로서 이는 유가하락과 더불어 원유 수입 규모가 1994년래 최소규모를 기록하는 등 주요하게 기인했기 때문
- 한편, 미 상무부는 10월의 적자폭이 434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하향 수정했다고 발표

2) 12월 ISM서비스업지수 56.2, 6개월래 최저

- 지난 6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는 작년 12월 중 미국 서비스업지수가 56.2를 기록했다고 밝힘
 - 이는 지난 11월 기록치인 59.3과 시장 전망치인 58.0에도 하회하는 결과
- 하지만, 전문가들은 12월 지수를 포함한 2014년 지수 평균은 최근 9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
-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부문의 둔화는 일시적이라고 분석, 가솔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서비스업계는 올해 재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유로존, 12월 CPI 전년대비 -0.2%, 약 5년만에 첫 마이너스

- o 지난 7일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작년 12월 중 CPI 잠정치가 전년대비 -0.2%로 집계되었다고 밝힘
 - 이는 직전월의 0.3%와 전문가 예상치인 -0.1%를 하회한 결과로,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
 - 이로인해,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확산되면서 ECB가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
- o 반면,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년동월대비 0.8% 상승
- o 한편, 유로존 CPI는 지난 201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2013년 10월 중 1.0%, 지난해 7월에는 0.5%를 하회한 바 있음

2) BOJ, 유가하락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예상

- o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BOJ(일본은행)가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오는 정례통화정책회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
 - BOJ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결과
- o 한편, BOJ는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.7%에서 1.2%로 낮추면서 시장 예상을 벗어난 추가 양적완화(QE)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 - 이는 전 세계적인 국제 유가 하락이 일본 내 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코치(Coach), 신발 브랜드 스투어트와이즈먼 인수

- o 지난 6일 WSJ은 미국 명품 브랜드 코치가 신발 브랜드 스투어트와이즈먼을 인수가격 5억 7,4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
 - o 코치는 스투어트와이즈먼을 소유하고 있는 사이커모어파트너스에 우선 5억3천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, 이후 스투어트와이즈먼의 향후 3년간 매출이 일정 목표치를 도달할 경우 추가로 4천4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
 - o 한편, 코치는 최근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 이외에 신발류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코치는 지난해 매출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34% 급락한 바 있음